산지 쌀값 상승 해법 묘책부재

초과물량에 대한 전량 격리조치가 발표됐으나 농협 사후정산제 확산에 악영향

신곡 수요량 대비 초과물량에 대한 전량 격리조치가 발표됐지만 산지쌀값 상승에는 해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의 사후정산제 확산으로 인해 산지가격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 조사치는 20kg정곡 기준 3만2232원을 나타내면서 전순보다 105원 0.3% 하락했다.

80kg 정곡 환산가격으로 따지면 12만8928원으로 420원 떨어졌고, 13만원선에서도 더 멀어졌다.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생산량 발표 후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 생산량 중 시장수요량을 제외한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량 419만7000톤 중 신곡수요량 389만8000톤을 제외한 나머지 29만9000톤 전량을 격리한다는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25만톤에 대한 시장격리에 이어 추가로 4만9000톤에 대한 격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농협이 보유한 2015년산 쌀 1만4000톤에 대한 추가격리 및 1만6000톤에 대한 용도전환, 이어진 농협중앙회 차원의 구곡 시장격리라고 할 수 있는 회원조합의 2015년산 재고미에 대한 농협양곡 위탁 판매 결정도 있었다.

하나같이 쌀 시장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조치였고, 또 정부가 기존 약속대로 2016년산 쌀 생산량 중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 약속을 지켜 조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확기에 이후 산지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낙폭을 크게 줄였던 산지가격은 각종 격리조치가 발표된 15일로 접어 들면서 소폭이지만 낙폭을 다시 늘린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도 수확기 가격 상승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농협 관계자는 "제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으로 공급되는 쌀의 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GS&J의 '내년도 단 경기 쌀가격 어떻게 될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단경기 쌀값이 올해와 같은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역계절진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계절진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를 관통하는 쌀값 전망도 전반적으로 우울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변동직불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GS&J 관계자는 "3년 연속 역계절 진폭에 의한 매입의향의 과도한 냉각은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곡 처분 문제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지가격은 점차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인도·말레이시아 수출상담회 성황리 개최

도내 기업의 수출 부진 타개와 유망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위한 인도.말레이시아 수출상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인도.말레이시아 2개국에 도내 9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년 2회 이상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에 8개사가 참여해 총 상담액 1,312만불, 현장 계약액 2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남미(페루, 칠레) 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 1,352만불, 현장 계약액 25만불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는 (주)그린환경 등 9개사가 참가해 총 84건, 1,090만달러에 상당하는 수출 상담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참가업체 중 스테인리스, 스틸튜브 생산업체인 디에스엔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조선업종의 Larsen&Toubro Limited 업체와 구체적인 수출협상을 진행해 10만불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전시장 조사를 통해 인도 진출 가능성을 확신한 쿨테이너(생산품 : 저온냉장고)는 이번 상담회에 참가해 냉동설비 플랜트 제조사인 SRI SAITECH 업체의 현지 공장 방문과 적극적인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쿨테이너, SRI SAITECH, YBR INC 등 4개사 공동출자한 조인트 벤처사를 첸나이 현지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가업체들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급증하는 인도, 아세안에서 중산층이 가장 발달해 동남아 시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장으로서 기대이상의 성과와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인도.말레이시아 시장 개척활동 성과가 동남아 시장 전체로 이어지고, 도내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 실시

전북농협과 익산군산축협은 21일 익산군산축협 회의실에서 한우사육 조합원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개량.질병.번식 부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으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개량.질병.번식 등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보급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설팅은 우량송아지와 고급육 생산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을 위해 개량.질병.번식 부문의 핵심 강의와 한우농가들이 사양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컨설팅의 만족도를 높였다.

컨설팅에 참가한 농가들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량.번식 및 질병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안재용 기자

대방건설, 주상복합 공급

전북혁신도시에 지상 최고 45층 6개동 1,638세대로

2016 시공능력평가 30위를 기록한 대방건설이 전북혁신도시 4-1블록에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를 공급할 예정이여서 관심이 뜨겁다.

시공능력평가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대방건설은 작년 49위에서 19단계를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혁신도시 4-1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대방디엠시티는 주상복합 45층으로 계획돼 전북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방디엠시티는 대지면적 7,200여평에 지하5층 지상 최고 45층 6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0㎡OA 390세대, 20㎡OB 117세대, 27㎡OC 312세대, 63㎡OD 3세대, 66㎡OE 2세대, 70㎡OF 2세대, 84㎡OG 158세대, 84㎡OH160세대, 106㎡A 83세대, 106㎡B 83세대, 119㎡A 165세대, 118㎡B 163세대 등 총 1,638세대로 예정돼 있다.

대방디엠시티는 생활, 가치, 건강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주상복합 특화 프리미엄 브랜드로써, 전북혁신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상복합으로 오픈 전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방디엠시티가 들어서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이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방디엠시티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로서 전북혁신도시의 분양을 기다려왔던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공원, 공공기관, 상업지구를 바로 앞에서 모두 누리는 핵심생활권에 위치하며 주거, 업무, 쇼핑, 영화관(예정)이 공존하는 총 1,638세대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이다.

커뮤니티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품격 높은 주거문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계획돼 있다.

대방건설의 프리미엄을 체험할 수 있는 견본주택 오픈일은 2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견본주택(1688-3633)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2-1번지에 위치해 있다. /안재용 기자

LX공사, 사내 변호사 활용 억울한 농민 민원 해결

날로 수은주가 내려가는 요즘 LX공사의 농촌사랑 미담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있다.

LX공사는 지난 해 10월 공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제시소재 거야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던 중, 마을 특산품인 '오디'를 판매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해 주고자 무료로 사내 변호사를 마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 후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한 공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5월 19일 변론을 종결했고 8월 11일 최종 판결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개발공, 전북혁신도시 상업·근생용지 공급나서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이서)내 상업용지(1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근생용지는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용도별 면적 및 예정가격은 상업용지 606.2㎡/7억6,381만2,000원, 근린생활시설용지 522.0㎡/4억9,642만2,000원이며, 혁신도시 내 같은 용도의 토지 중 마지막 필지에 해당한다.

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00%가 적용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해당 토지는 사업준공이 완료돼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이전 및 건축이 가능하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공급하는 용지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용지(3필지, 3만7,000㎡)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지난달 매각했으며, 그에 따라 인근지역 혁신도시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서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안재용기자

금감원, 수능마친 학생 금융교육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이 수능을 마친 전북지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금융교육은 전국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금융강좌의 일환이며, 특히 도교육청을 통해 수능 이후 고3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전주지원은 '예비 대학생.사회인을 위한 금융이야기'라는 주제로 21일부터 한달동안 장수고를 시작으로 도내 20개 고등학교, 총 3,700여명의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강의는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소속의 변호사 등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제 곧 대학생.사회인이 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금융거래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김진우 전주지원장은 "이번 고3 대상 금융교육은 금융활동이 임박한 학생들이 합리적 금융활동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움으로써 청년 신용불량, 대학생 금융사기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3 대상 금융교육 등 도내의 다양한 금융교육 수요에 대응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